

서비스직 유무에 따른 아르바이트 종사자 대학생의 자가구취인식도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정혜민¹ · 조한아² · 정성균² · 김아영³ · 김예린³ · 김유림³ · 이예진³ · 이은아³ · 정민주³ · 임도선^{3†}

¹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의학과

²신한대학교 바이오생태보건대학 치위생학과

³을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1. 서론

아르바이트란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로 미숙련 단시간의 노동력을 요구한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필요를 해소할 수 있는 부가적인 활동으로 단조로운 작업 위주의 서비스 직종비율이 높다¹⁾.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주당 20시간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근무 중 대인관계를 활발히 하는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구취가 유발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¹⁾. 구취는 입을 통해 나오는 호기의 냄새 중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냄새²⁾로 자신감 저하와 업무몰입을 방해하고 사회적 의사소통과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큰 구강질환으로 구취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1,3)}.

구취는 진성구취증과 가성구취증, 구취 공포증으로 분류되며 진성구취는 구취가 실제로 감지되는 경우를 뜻하고, 가성구취는 객관적인 증상이 없고, 타인도 인

식하지 못하지만 스스로는 구취를 호소하는 것이다. 구취 공포증은 구취가 심하게 나지 않음에도 환자 본인만 심하게 구취를 호소하며 걱정하는 경우로⁴⁾, 구취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에 의해 발생한다. 호흡계 질환, 간 질환 및 신장 질환, 소화기 질환, 약물 등의 전신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빈도는 10% 미만으로 드문 편이다⁵⁾. 구강 내 원인이 85~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치아나 타액의 성분등과 같은 숙주요인과 음식 잔유물 등이 세균에 의해 부패된 결과로 나타난다. 치주질환, 타액분비량 감소, 구내염, 불량한 보철물, 혀 부위에 과도한 미생물 침착, 비위생 상태의 틀니등이 원인요소가 될 수 있겠다. 혀의 배면에 부착된 설태와 미치료된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과 같은 만성 구강질환, 구강암 등도 구취 발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3,6,7)}. 이와 같이 구취는 여러 가지 원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관리적 측면에서 구취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취를 일으키는 가장 주원인인 치면세균막의 제거는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치면세균막의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칫솔질과 더불어 보조구강위생용품을 함께 사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⁸⁾. 구강양치액은 치면세균

접수일: 2019년 12월 5일 최종수정일: 2019년 12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9년 12월 20일

교신저자: 임도선, (1313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삼성대로 553
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Tel: 031-740-7229, Fax: 031-740-7352

E-mail: idsun@eulji.ac.kr

막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항균제로 안전하게 치면세균막 형성을 저해하고 예방하는 작용을 하며 구취 및 치은염 발생을 감소시킨다⁹⁾. 더불어 치간칫솔 사용을 통해 구취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헛솔질 또한 설배면세균막과 치면세균막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결과¹⁰⁾는 구취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서비스직에 종사자들에게 고객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자가구취인식도와 구강보건관리실천도를 파악하고, 자가구취인식도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고안해 보고자 서비스직 유무로 대상자를 나누어 그 영향력을 평가해 보았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 150명과 아르바이트에 종사하지 않는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연구 모집단을 편의추출 하였다. 네이버 폼으로 배부된 설문지에 안내문을 읽고 동의함에 체크한 후 설문을 실시하게 지도하였다. 설문지 303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자 3부를 제외한 300부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조사 전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비를 맞추어 남학생 100명과 여학생 100명으로 결과를 산출하였다. G-power 3.1.9 프로그램을 통해 분산의 차이를 나타내는 χ^2 검정에 기초하였으며, 양측검정, 유의수준 $\alpha=0.05$, 검정력 0.95의 조건하에서 최소 표본크기를 통해 산출된 대상자 수 220명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구취 발생과 구강관리요인에 대한 연구⁶⁾와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¹⁾에서 연구대상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파일럿 연구에서도 남자보다 여자의 응답이 더욱 성실하였던 바 성비(남자:여자)를 1:2로 하여 연구대상자를 구성하였다.

2.2. 연구도구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 3문항, 구강보건의식행태 5문항, 자가구취인식도 3문항, 구강보건관리실천도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전공을 조사하였다. 구강보건의식행태는 ‘구강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구강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칫솔질을 하는 목적’, ‘평소 칫솔질 하는 방법’, ‘칫솔질 교육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자가구취인식도는 “지금 현재 입 냄새가 난다고 느낍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5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가구취인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강보건관리실천도는 이 등¹¹⁾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관리실천도는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는 구강보건관리실천도에서 0.752였다.

2.3. 통계적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서비스직 종사여부에 따른 구강보건의식행태와 자가구취인식도는 각각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서비스직 유무에 따른 자가구취인식도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의 평균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자가구취인식도, 구강보건관리실천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자가구취인식도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때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Beta값도 함께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alpha=0.05$ (two-tailed)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학년을 살펴보면, 서비스직군에서는 4학년이, 비서비스직군에서는 3학년이 가장 많았다. 전공은 의약 및 보건계열과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에서 서비스직군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Tabl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서비스직		비서비스직	
		N	%	N	%
성별	남자	50	50.0	50	50.0
	여자	100	50.0	100	50.0
학년	1학년	27	42.2	37	57.8
	2학년	32	50.0	32	50.0
	3학년	43	48.9	45	51.1
	4학년	48	57.1	36	42.9
전공	인문사회 및 교육	30	44.1	38	55.9
	자연과학 및 공학	36	46.2	42	53.8
	의약 및 보건	56	52.8	50	47.2
	예체능	28	58.3	20	41.7

3.2. 구강보건의식행태

서비스직군에서 칫솔질을 하는 목적은 ‘충치와 잇몸병 예방’, ‘구취’, ‘상쾌한 기분’, ‘치아를 깨끗이 하며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항목 순으로 나타난 반면, 비서비스직군에서는 ‘충치와 잇몸병 예방’, ‘상쾌한 기분’, ‘구취’,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허전해서’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직군에서 구취제거에 대한 목적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더 높은 비율로 확인

되었다.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는 두 직군에서 회전법과 위 아래로 닦는 방법을 가장 많이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3.3. 자가구취인식도

연구대상자의 자가구취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직군과 비서비스직군 모두에서 구취의 원인은 백태와 음식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4. 서비스직 유무에 따른 자가구취인식도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의 평균분석

서비스직군과 비서비스직군에서 자가구취인식도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의 평균분석 결과, 서비스직군의 평균값이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Table 4).

3.5. 자가구취인식도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의 상관관계

자가구취인식과 구강보건관리실천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r=-0.11$, $p<0.0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으나 그 절대값의 크기가 크지는 않아 매우 약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Table 5).

3.6. 자가구취인식도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직군에서 자가구취인식도가 증가하면 구강보건관리실천도에는 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는데 이를 해석해보면, 자가구취인식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구강보건관리실천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 특성인 성별과 학년변수를 보정해도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Table 6).

Table 2. 구강보건의식행태

		서비스직		비서비스직		x ²	p
		N	%	N	%		
구강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치아우식증	50	47.2	56	52.8	1.98	0.740
	치주질환	23	46.0	27	54.0		
	구취	34	50.0	34	50.0		
	심미적인 면	31	56.4	24	43.6		
	사랑니 통증	12	57.1	9	42.9		
구강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유전적 요인	31	52.5	28	47.5	2.96	0.564
	구강관리에 소홀해서	71	51.1	68	48.9		
	당분을 자주 섭취해서	22	40.0	33	60.0		
	치과 방문 여유가 없어서	19	55.9	15	44.1		
	전신적 요인	7	53.9	6	46.1		
칫솔질을 하는 목적	치아를 깨끗이 하며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15	65.2	8	34.8	18.21	0.001
	충치와 잇몸병 예방	69	47.6	76	52.4		
	상쾌한 기분	23	40.4	34	59.6		
	닭지 않으면 허전해서	1	9.1	10	90.9		
	구취	42	65.6	22	34.4		
칫솔질 방법	옆으로 닦기	17	38.6	27	61.4	10.56	0.032
	위 아래로 닦기	32	40.5	47	59.5		
	칫솔 회전	85	57.4	63	42.6		
	둥글게	7	43.8	9	56.3		
	모름	9	69.2	4	30.8		
칫솔질 교육여부	있다	109	51.9	101	48.1	1.02	0.313
	없다	41	45.6	49	54.4		

Table 3. 자가구취인식도

		서비스직		비서비스직		x ²	p
		N	%	N	%		
현재 느끼는 구취	매우 그렇다	6	35.3	11	64.7	4.75	0.314
	그렇다	42	53.2	37	46.8		
	보통이다	69	46.6	79	53.4		
	그렇지 않다	28	57.1	21	42.9		
	전혀 그렇지 않다	5	71.4	2	28.6		
혓솔질	안 한다	4	36.4	7	63.6	5.28	0.260
	가끔 한 번	13	44.8	16	55.2		
	하루에 한두 번	12	46.2	14	53.8		
	이를 닦을 때마다	109	50.0	109	50.0		
	평소에도 자주 닦는다	12	75.0	4	25.0		
구취의 원인	충치	9	33.3	18	66.7	10.95	0.027
	음식물	33	41.3	47	58.7		
	잇몸병	11	42.3	15	57.7		
	백태	79	56.8	60	43.2		
	전신질환	18	64.3	10	35.7		

Table 4. 서비스직 유무에 따른 자가구취인식도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의 평균분석

	구강보건관리실천도					
	자가구취인식도			구강보건관리실천도		
	Mean	Sd	P	Mean	Sd	P
서비스직	34.39	4.32	0.000	26.26	4.91	0.000
비서비스직	31.89	4.95		23.02	4.24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5. 자가구취인식도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의 상관관계

	자가구취인식도	구강보건관리실천도
자가구취인식도	1	
구강보건관리실천도	-0.11*	1

* p<0.05

Table 6. 자가구취인식도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구강보건관리실천도											
	서비스직			비서비스직			서비스직			비서비스직		
	Coef	Beta	P	Coef	Beta	P	Coef	Beta	P	Coef	Beta	P
자가구취인식도	-1.058	-0.187	0.022	-0.492	-0.092	0.262	-1.047	-0.185	0.020	-0.590	-0.111	0.162
성별							-1.905	-0.183	0.022	1.820	0.195	0.014
학년							0.604	0.135	0.091	0.966	0.242	0.002

4. 고찰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직종에 따라 고용되는 근로자에게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은 그들의 생산력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판매로 이어지는 서비스직군 종사자는 구취와 같은 구강질환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¹²⁾. 이에 본 연구는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과 종사하지 않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가구취인식도의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가구취인식도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구강보건의식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치솔질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

각하십니까?’ 질문에 서비스직군에서는 ‘충치와 잇몸병 예방’과 ‘구취’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비서비스직에서 ‘충치와 잇몸병 예방’과 ‘상쾌한 기분’과는 대조되는 응답으로, 서비스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즉, 본 연구에서 가정했던 자가구취인식이 서비스직군에서 더 많은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자가구취인식도가 높을수록 구강보건관리실천도가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등¹³⁾은 군인 253명을 대상으로 구취관련요인에 따른 구취자각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자가구취인식도와 구취걱정은 양의 상관관계($r=0.451$, $p<0.01$)를 나타냈으며, 구강건강자각도와는 음의 상관관계($r=-0.286$, $p<0.01$)를 나타냈다. 즉, 자가구취인식도가 높을수록 구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하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결과로 사료된다. 한 등⁵⁾은 성인 362명을 대상으로 자가구취인식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판매·서비스직 종사자, 구강위생관리행동의 실천율이 낮은 집단에서 자가구취인식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구강위생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과 지속적인 피드백의 진행을 강조하여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 구취발생의 원인은 대부분 구강에서 찾을 수 있고, 일부는 전신질환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인간의 몸은 유전, 영양 및 심리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구강건강상태 이외에도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전신건강 관련요인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결과를 확인할 필요도 있겠다⁸⁾. 이러한 측면에서 홍¹⁴⁾은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조감, 구취 및 스트레스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는데, 구취와 구강건조감은 양의 상관관계($r=0.301$, $p<0.001$),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r=0.374$, $p<0.001$)를 나타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인 성인들의 스트레스 해결을 통한 구강건강향상 방안의 마련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를 토대로 본 유추해 본다면, 서비스직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대학생들도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구취의 감소는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자신감 향상 및 의사소통에서 좀 더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부분이겠다.

Azodo 등¹⁵⁾은 나이지리아에서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구취가 구강건강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데, 연구대상 절반이상이 구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25~27세 집단, 여성, 칫솔질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집단이 구취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칫솔질과 구강보조용품(가글액, 치실의 사용)의 사용을 통한 구취감소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하였으며, 구취에 대한 대중의 지식과 인식의 개선에 치과 의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ayombo 등

¹⁶⁾도 400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가구취인식도와 구강위생관리행동의 관련성을 평가하였는데, 대상자의 절반(48.5%)이 구취를 보고하였다. 자가구취인식은 잇몸출혈, 음식 침적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혀솔질의 시행과 칫솔의 규칙적인 교체는 구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구취의 발생률은 교육수준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어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개입을 권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주장하는 구취감소를 위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사업장은 성인대상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접근이 쉽고 효율적인 장소이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 비교적 함축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통로 및 그 증폭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¹⁷⁾. 근로자의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는 구강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중 이탈을 감소시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전에도 유익하다. 하지만 현재 근로자는 구강검진을 통한 구강질환의 예방 및 조기치료로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강건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²⁾. 따라서 향후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관리실천을 할 수 있는 실천도 향상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과 홍보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서비스직군의 근로자와 같은 산업체 근로자들의 구강건강향상 및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표본선정에 있어 경기도 및 서울 거주 대학생들로만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다른 전체적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 어렵다. 편의추출을 통해 대상자의 분포조절에서 편의(bias)를 가졌으며, 충분한 독립변수가 포함되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뽑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직 유무에 따른 아르바이트 종사자 대학생들의 자가구취인식도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5. 요약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생 150명, 비서비스직인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자가구취인식도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에 미치는 영향력 알아보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직군에서 칫솔질을 하는 목적은 '충치와 잇몸병 예방'과 '구취' 항목이 주를 이룬 반면, 비서비스직군에서는 '충치와 잇몸병 예방'과 '상쾌한 기분' 항목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8.21, p<0.001$).
2. 서비스직군과 비서비스직군 모두에서 구취의 원인은 백태와 음식물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chi^2=10.95, p=0.027$).
3. 서비스직 유무에 따른 자가구취인식도와 구강보건관리실천도의 평균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직군에서 모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4. 자가구취인식과 구강보건관리실천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amma=-0.11, p<0.05$).
5. 성별과 학년을 보정한 회귀분석모델에서, 자가구취인식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구강보건관리실천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Beta}=-0.185, p=0.02$).

이상과 같이 서비스직 유무에 따른 아르바이트 종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가구취인식도가 구강보건관리 실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본 결과, 서비스직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대학생의 자가구취인식도가 높을수록 구강보건관리실천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서비스직 종사자의 구강건강향상 및 증진을 위한 구강건강 프로그램 및 홍보등의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ORCID ID

Sung-Kyun Chung 0000-0002-4022-1620

Do-Seon Lim 0000-0003-4602-3323

참고문헌

1. 김미정.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77
2. Bornstein MM, Stocker BL, Seemann R, Bürgin WB, Lussi A. Prevalence of halitosis in young male adults: a study in Swiss army recruits comparing self-reported and clinical data. *Journal of periodontology* 2009; 80(1): 24-31.
3. Bollen CM, Beikler T. Halitosis: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science* 2012; 4(2): 55-63.
4. Rosenberg M.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oral malodor. *Journal of dental research* 1994; 73(3): 586-589.
5. 한지선, 홍주희, 최준선. 일부 성인에서 자가 구취인식도와 관련된 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11(12): 347-356.
6. 엄복희. 구취 발생과 구강관리요인에 대한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13. 1-28.
7. 조자원, 신승철, 서현석. 혀세정기구의 형태에 따른 인공설태제거효과에 관한 비교실험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3; 27(1): 75-85.
8. 김명은. 일부 서비스 종사자들의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 8(3): 37-52.
9. Arora V, Tangade P, Ravishankar TL, Tirth A, Pal S, Tandon V. Efficacy of dental floss and chlorhexidine mouth rinse as an adjunct to toothbrushing in removing plaque and gingival inflammation - A three way cross over trial. *Journal of clinical and diagnostic research*: 2014; 8(10): ZC01 - ZC04.

10. 장경애, 강현경, 배일권, 이숙정. 일부지역 근로자의 구취측정 정도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와 주관적 구강건조증.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2014; 2(1): 46-53.
11. 이수빈, 윤정원, 성미경, 이민경, 김예황, 이정화. 일부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련요인이 구강보건지식, 태도, 실천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8; 42(4): 124-129.
12. 한경순. 수도권 지역 일부 성인의 구취자각증상과 관련 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2013; 13(3): 475-480.
13. 이미라, 심재숙. 일부 군인의 구취관련요인에 따른 구취자각도. 보건의료산업학회지 2013; 7(3): 125-135.
14. 홍민희. 일부 성인의 구강건조감, 구취와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15; 15(3): 389-397.
15. Azodo CC, Onyeagba MI, Odai CD. Does concern about halitosis influence individual's oral hygiene practices?. Nigerian medical journal: journal of the Nigeria Medical Association 2011; 52(4): 254-259.
16. Kayombo CM, Mumghamba EG. Self-Reported Halitosis in relation to Oral Hygiene Practices, Oral Health Status, General Health Problems, and Multifactorial Characteristics among Workers in Ilala and Temeke Municipals, Tanz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dentistry, 2017; 2017: 1-10.
17. 정정옥, 배수명, 송귀숙. 일부 직장근로자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도 및 실천도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8; 8(1): 21-27.

ABSTRACT

The effects of self-perception of halitosis on oral health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Hye-Min Jeong¹, Han-A Cho², Sung-Kyun Chung², Ah-Yeong Kim³, Ye-Lin Kim³,
You-Rim Kim³, Ye-Jin Lee³, Eun-A Lee³, Min-Ju Jung³, Do-Seon Lim^{3†}

¹Department of Dental,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han University

³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 Eulji University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perception of halitosis on oral health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whether they worked in a non-service or service-related job.

Methods: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of 150 university students working in service jobs and 150 university students working in non-service jobs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conducted from 26th April to 5th May 2018. The survey tool consisted of 3 general topic areas. There were 5 questions on oral health awareness behavior, 3 questions related to their self-perception of halitosis, and 8 questions on their oral health care practice. All were measured on the Likert 5-point scale. The frequency of their oral health behaviors and their self-perception of halitosi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subjects' occupation.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a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influence of the two. The significance level fo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was set to $\alpha = 0.05$ (two-tailed).

Results: In both the service and non-service groups, a coated tongue and food debris were found to influence halitosis ($\chi^2=10.95, p=0.027$). According to the t-test, taking into account the self-perception of halitosis and oral health behaviors, both were higher in those that had a service job. Self-perception of halitosis and oral health behavior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correlation ($\gamma=-0.11, p<0.05$). As the self-perception of halitosis increased, oral health care practices also increased ($\text{Beta}=-0.185, p=0.020$).

Conclusions: Systematic interventions such as oral health programs and health promotion are needed to improve the oral health of service workers.

Keywords: Halitosis, Oral health behaviors, Oral health perception